

음악특화 ‘아중호수도서관’ 개관

전주시, 개관식 가져... 책 · 음악 · 아중호수 자연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탄생

전주도심 속 친수공간인 아중호수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책과 함께 음악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자연 속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동 자생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 내 수변로에 건립돼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게 될 아중호수도서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아중호수 관광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아중호수도서관은 음악 특화 도서관으로서, 책과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의 자연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구체적으로 지상 1층 건물에 연면적 902㎡ 규모로 지어졌으며, △음악자료 공간 △음악감상공간 △열람공간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췄다.



전주시는 2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과 동 자생단체 회원, 일반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중호수도서관의 개관식을 가졌다.

특히 아중호수도서관에서는 음악특화 도서관답게 일반도서는 물론, 다양한 음악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음악 분야 특화 도서와 클래식·재즈·팝·OST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 바이닐(LP) 자료 등을 포함해 1만 5000여 점의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아날로그 음원의 감성을 고품질의 음악 장비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청음공간도 마련해 시민 누구나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음반을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중호수도서관에서는 앞으로 다채로운 음악 분야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이다.

정이다. 이날 개관식에서 선보인 전주 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8월에는 해설과 함께 정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클래식 플라즈마 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연중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킹공연인 ‘시민 참여 음악캠프’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호수 음악여행’ △음악 주제 인문학 강연인 ‘음악인문학 101’ 등이 진행된다.

아중호수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는 정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단, 매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일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아중호수도서관에서 시민들이 책과 음악은 물론 아름다운 아중호수의 경관을 즐기며 새로운 독서 경험과 문화적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즐겨 찾는 도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인근 앙쟁레뱅(Enghien-les-Bains)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연차회의’에 참석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들과 협력 강화

전주시, 프랑스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연차회의’ 참석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세계 각국의 창의도시들과 도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인근 앙쟁레뱅(Enghien-les-Bains)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연차회의’에 참석했다.

‘문화와 인공지능: 유네스코 창의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다(Culture and Artificial Intelligence)’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차회의에는 전 세계 100여 개국 350개 창의도시 대표단이 참석, 인공지능(AI) 기술을 문화 발전에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유네스코의

‘시 윤리에 관한 권고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전주시 대표단은 회의에서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전략 모색 △도시간 교류 확대를 위한 그룹 토론(Creative Cities Agora) △전주시 홍보자료·기념품 교부 및 시장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미식관광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파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며, 향후 전주 미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와 관련 자료들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전주 공식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최지은 의원 김학송 의원 이보순 의원 장재희 의원 송영진 의원 양영환 의원

전주시의원 6명, 5분 발언 잇따라

25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전2동)은 급변하는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농촌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고령화, 농기계 안전 등으로 노후된 농업 기반 시설은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된다”며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 대책 강화, 노후 농로와 농업 시설 개선,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대형차량의 발생 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날마다 주차가 이면도로와 갓길에 대형차량의 발생 주차로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단속 전담인력 확충, 주·야간 상시 단속체계 구축 △민원 다발 지역 중심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확대·설치 △차고지 위치 안내 플랫폼, 주차장 정보 제공 서비스 도입 등을 제안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 대지마를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1970년대 공인지구 지정 이후 신축·개보수 제한으로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평교(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행정협업체 구축 구성 △대지마를 재난 취약지역 지정으로 선제적 안전 관리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장재희 의원(비례대표)은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 위험

수목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유지 수목이라도 공공안전을 위해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위험성 평가 기준 도입, 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은 만성지구의 정주여건 개선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생활 인프라와 복지 시설이 매우 부족하고 응급의료시설, 119안전센터가 전무해 응급시 골든타임 확보도 어렵다”며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정책적 신뢰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전향적 대응을 촉구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화, 서서화, 평화 1·2동)은 청년층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전산업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전주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최소 150만㎡ 이상 면적확보가 가능하고 3개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등 평화동 학전마을 인근에 산업단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부상길 보물찾기 대탐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주 원도심 옛 전주부상길의 자취를 시민과 관광객의 발걸음으로 다시 잇는 ‘보물찾기 대탐험’이 시작된다.

전주시는 28일과 29일, 내달 5일과 6일 총 4회에 걸쳐 전주부상길을 배경으로 한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전주부상길 보물찾기 대탐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주부상길은 과거 전주 도심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철거된 이후 풍남문만이 남겨졌고, 현재는 그 흔적마저 희미해진 상황이다.

이에 시는 조선왕조의 분할이자 호남의 중심지로서 오랜 시간 역사와 문화를 품어온 전주를 품어온 전주부상길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사라진 성곽길을 따라 걷는 경험을 통해 전주 원도심의 역사적 가치와 매력을 재발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전주시의회(의장 남관우)는 25일 제4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올해 추경예산보다 10억원 가량 감액한 제1회 추경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24일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전주인문상생협력 활동 지원 2억원(전액) 또는 일부 삭감 △늘푸른마을임대 아파트 정비공사 4억원(전액) △전주하계울림피유치 활동 지원 6,000만원(일부) △투명PET 선별시설 개선사업 1억원(전액)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

설 슬러지 저류조 이전사업 1억원(전액) 등 모두 9개 사업에 10억8,050만원을 삭감했다.

예결위는 추경안 권고 사항으로 ‘하계울림피유치 지원 범시민 다짐 결의대회 사업’의 경우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홍보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시민참여형 가로정원 유지관리 사업’의 경우 4,000만원 전액 삭감분을 △음향마스터링 인건비 1,500만원 △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원 △여성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등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주민센터(동장 김성균)는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희)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계층 100세대에 직접 만든 삼계탕과 김치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로, 지역 내 저소득층 및 복지 사각

지대 대상자를 찾아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개발·연계해 진북동의 튼튼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전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명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금>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